

-길래

~길래 — 그것을 보고, 그래서 나는...

자기 바깥의 무언가 — 보거나 듣거나 알아차린 것 — 에서 나온 이유를 말하고, 뒤에 그에 대해 자신이 한 일을 이어 말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·형용사	-길래	싸다 → 싸길래
ㄴ 어간은 ㄴ 유 지	-길래	만들다 → 만들길래
과거	-았/었길래	갓길래
앞 절의 주어	자신이 아님	사과가 싸길래
뒤 절	자신의 행동	좀 샀어요
문어 표현	-기에	싸기에 샀습니다

■ 언제 쓰나요

-길래는 어떤 어간에든 붙습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 ㄴ도 유지되며, 앞에 시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: 갓길래.

구조는 정해져 있습니다. 앞 절은 자기 바깥에서 관찰한 것을 전하고, 뒤 절은 그에 반응한 자신의 행동을 전합니다: 사과가 싸길래 좀 샀어요.

따라서 앞 절의 주어는 보통 자신이 아닙니다. 제가 배고프길래 밥을 먹었어요가 어색한 것은 자신의 배고픔을 바깥에서 관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.

이 어미는 구어에 쓰며, 문어에서는 -기에를 씁니다. 또 -아서와 마찬가지로 뒤에 명령이나 청유가 올 수 없습니다. 뒤 절은 이미 한 일을 전합니다.

■ 예문

- 1 사과가 싸길래 좀 샀어요.
- 2 밖이 시끄럽길래 나가 봤어요.
- 3 날씨가 좋길래 산책을 했어요.
- 4 아무도 안 만들길래 제가 만들었어요.
- 5 친구가 아프다고 하길래 죽을 사 샀어요.
- 6 가게가 문을 닫았길래 그냥 돌아왔어요.

■ 비교

-아서/어서

-아서는 자신의 상태를 포함해 어떤 원인이라 나타냅니다. -길래는 이유를 바깥 세상에서 알아차린 것으로 제시합니다.

배고파서 밥을 먹었어요. (배가 고파서) / 싸길래 샀어요. (싼 것을 보고)

-(으)니까

-(으)니까는 명령과 청유를 받지만 -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. 이때 뒤 절은 항상 이미 한 일입니다.

싸니까 사세요. (싸니까 사라) / 싸길래 샀어요. (싸서 샀다)

-기에

문어에 대응하는 표현입니다. 구조와 제약은 같지만 대화보다는 보고서나 격식 있는 글에 어울립니다.

싸길래 샀어요. (구어) / 저렴한기에 구입했습니다. (문어)

■ 주의

✗ 제가 배고프길래 밥을 먹었어요.

○ 제가 배고파서 밥을 먹었어요.

-길래는 이유를 자기 바깥에서 관찰한 것으로 제시합니다. 자신의 배고픔은 그렇게 관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.

✗ 사과가 싸길래 좀 사세요.

○ 사과가 싸니까 좀 사세요.

-길래 뒤에는 명령이 올 수 없습니다. 뒤 절은 자신이 한 일을 전합니다.

✗ 아무도 안 만들길래 제가 만들었어요.

○ 아무도 안 만들길래 제가 만들었어요.

-길래는 어간에 바로 붙고 ㄴ이 유지됩니다. ㄴ이 탈락하는 -는, -(으)니까와 다릅니다.